

〈일반논문〉

# 제국주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李種赫의 생애와 활동\* : 굴종, 협력, 저항의 인생사

김 주 용 \*\*

〈목차〉

- I. 머리말
- II. 가계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시절
- III.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교와 독립군 '토벌'
- IV. 만주 망명과 참의부 활동
- V. 체포와 순국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종혁은 근대해산 이후 명백을 유지했던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폐교되자,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에 따라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했지만 그는 망국노의 신분으로 일본 육사를 무사히 마쳤다. 1915년 소위로 임관한 후 제국주의 일본군의 충실한 군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18년 연해주 지역으로 출병했을 때 자신과 같은 동족이자 항일 투사를 처형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을 보면서 독립군 참여의지

\* 이 글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일본사학회가 2020년 8월 6일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의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7 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조교수

를 불태웠다.

만주로 망명한 후 그의 무관학교 선배 이청천을 만났으며, 참의부 군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5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감옥에서 이종혁은 제국주의 일본의 회유를 수없이 받았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감옥에서 나온 이종혁은 몸은 피폐했지만 그의 정신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후대에 그대로 전해졌다. 혼란한 시기 한 개인의 영달과 국가의 안위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군인 이종혁의 삶이 친일의 길을 걸었던 그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와 선배들의 삶보다 소환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 주제어

이종혁, 이청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

---

## I. 머리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걸출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 가운데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을 지냈던 盧伯麟(육사 11기)과 무관학교 교관을 지냈던 李甲(육사 15기), 柳東說(15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일본 육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池青天, 李庇俊, 洪思翊, 이종혁 등도 있다.<sup>1)</sup> 이 글에서 다룰 이종혁은 지청천, 홍사익, 이응

---

1) 이기동 교수는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에서 일본 육사 출신들을 한국근현대사와 연결해서 다루었다. 그는 2020년 김경천처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인물 등 자료접근이 어려웠던 군인들의 활동을 보완하여 『비극의 군인들』을 다

준에 비하여 덜 알려진 인물이다.

“그말 한마디가 어디 입에서 떨어지던가요”. 이종혁은 나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잔잔한 눈길로 외우 유봉영의 얼굴을 건너보면 쓸쓸히 웃었다. “그 말 한마디만 하셨다면 그렇게 고생을 안하셔도 되실뻔 했쎬다레”<sup>2)</sup>

1965년 현대문학 5월호에 실린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선우휘의 단편소설 ‘마덕창 대인’의 첫 소절이다. 선우휘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마덕창 즉 이종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사 27기로 졸업한 군인이었다.<sup>3)</sup> 무관학교가 폐교되고 제국 일본은 마지막 무관생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식 교육을 시켰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생도들은 총 42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종혁과 같이 일본군대를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이청천(본명 지석규), 조철호, 이동훈뿐이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제국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유동열(15기), 김경천(23기), 지청천(26기), 이종혁(27기) 등이다.<sup>4)</sup> 김경천과 지청천 보다 뒤에 일본군대를 탈출하여 1920년대 만주

---

시 출간하였다. 다만 이 개정판에서도 이종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 2) 선우휘, 「마덕창대인」, 『현대문학』, 1965년 5월호.
- 3) 필자는 최근 충무공 이순신 후예들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백서농장에서 근무했던 13대 종손 이종옥, 그의 아들 이응렬,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세영(이천민) 등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중국지역 답사를 소설가 이원규 작가와 동행하였다. 이 글은 그 때 이원규 작가에게서 영감을 얻어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원규 작가는 이종혁이 평양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유봉영에게 보낸 엽서의 복사본, 이종혁의 장인 심능덕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해주었다. 이원규 작가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 4) 이갑(15기)은 독립군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신민회 활동 등으로 쇠잔한 몸을 이끌

지역 한국독립운동의 핵심기관이었던 참의부 군사위원장을 역임하게 된 이종혁의 일생을 복원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이종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경에 의해 이루어졌다.<sup>5)</sup> 그는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서 일본 육사로 가게 된 동기와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결혼과 딸의 행방 및 만주 망명과 풍옥상 부대에서의 활동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군대해산 과정과 생도들의 일본행 그리고 이종혁의 육사 시절, 시베리아 출병 및 일본군 탈출과 참의부 활동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가 1928년 체포된 후 5년을 복역한 후 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충무공 후손이자 일본 육사출신이며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삶을 개인의 고뇌와 국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려 했다.<sup>6)</sup>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정체성 확보라는 ‘脫我立國’의 전형을 보여준 이종혁의 인생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려 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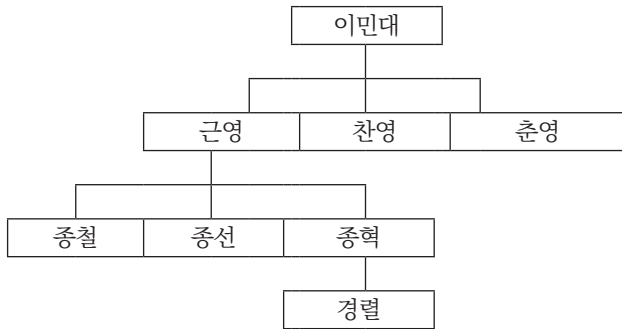
---

고 망명한 후 요양하였으며, 조철호(26)는 만주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었다. 참고로 일본 육사 26기와 27기 가운데 만주에서 제국 일본 입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만주국 관료로 임명된 염창섭(26기), 윤상필(27), 안병범(2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윤상필과 안병범은 만주사변의 공로를 인정받아 1935년 훈장을 받게 되었다.

- 5) 박경,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 6) 이기동 교수는 이응준이 “나에게 보인 호의는 비록 정책적인 회유의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겪은 어느 일본인보다도 생각과 행동이 큰 거인이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큰 거인이었던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의 배려로 해방까지 약 25년간 한반도에서 근무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기동, 「이응준, 국군 창설의 산파」, 143~145쪽).
- 7) 2020년 7월 11일 ‘대한민국 국군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20대 만주국 조선인 특설부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던 그가 해방과 한국전쟁 속에서 한국군의 영웅으로 자리잡았다. 어쩌면 한국군의 민낯 같다. 독립군과는 대척점

## II. 가계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시절

이종혁은 1892년 충남 당진군 송산면 명산리에서 태어났다.<sup>8)</sup> 그는 德水李氏 문혜공파 李瑾永의 6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sup>9)</sup> 이근영의 부친 李民大(1821~1890)는 무과를 급제하고 선전관이라는 관직도 제수 받았다.<sup>10)</sup> 근영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향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종혁의 큰형 종철은 무과 급제 후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이처럼 그의 가문은 무반으로 크게 관직에는 나가지 못하였지만, 그 명맥은 유지되었다. 그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310~314쪽 참조.

에 있었던 인물이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빈한 삶’을 살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실은 한 개인의 삶이 어떠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8)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이종혁의 생년월일은 1892년 8월 17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연도는 194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덕수이씨 문혜공파 족보에는 이종혁 출생일을 1892년 8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덕수이씨 대종회 이충렬 총무이사 제공). 그가 사망한 해는 1935년 12월 14일이다(『조선중앙일보』).
- 9) 『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310~314쪽.
- 10) 『승정원일기』 1886년 4월 18일.

이종혁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한 배경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의 선대가 무반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문의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sup>11)</sup> 1896년 1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새로운 군대를 지휘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교수할 수 있는 초급 장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개교하였다.<sup>12)</sup> 하지만 아관파천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하여 육군무관학교의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1898년 4월 육군무관학교 실시에 관한 공식 건의서가 올려졌다. 그해 5월 칙령 제11호로 육군무관학교 관제가 개정, 공포되면서 7월 비로소 다시 개교하였다. 제1회 200명 정원에 1,700여 명이 응시하였듯이 처음 실시하는 근대 군사교육기관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1900년 9월 관제가 개정되었다. 즉 군부의 장령과 위관과 칙임관의 추천으로 학도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것이다.<sup>13)</sup>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응시된 인물들은 대부분 군부의 장교 자제거나 칙임관의 자제였다. 무관학교의 교과목은 주로 전술, 군제, 병기, 축성, 지형학 등이었고, 특이하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馬學도 있었다. 인성교육과 체력훈련도 실시했다.<sup>14)</sup>

제국주의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압박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실질적은 병합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의 공권력을 대변하는 군대해산 작업은 1907년 7월 ‘정미조약’으로 완성되었다.<sup>15)</sup> 군대가 해산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지 24일 만에 무관학교 관제가 개정되었다.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군부의 군무국 교육과에 예

11)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황학수』, 역사공간, 2006, 24쪽.

12)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78쪽.

13)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황학수』, 24쪽.

14)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193쪽.

15) 『통감부 공보 호외』, 1909년 7월 31일(통감부고시제71호), 「군부폐지, 친위부신설 급 이에 부대하는 건」.

속되었으며, 학도의 호칭도 이때부터 생도라 칭하였다. 이들은 어학, 보통학, 군사학 등 3과로 나누어 각과 1년씩 3년 동안 수학하게 하고 학도 모집도 1년에 25명 이내로 감소하였다.<sup>16)</sup>

1907년 8월 군대해산은 대한제국의 많은 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sup>17)</sup> 새벽 7시에 각 시위대의 대대장급 이상 장교가 긴급 소집되어 군부 대신 이병무가 해산 조치를 발표하였다. 곧이어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장교들은 해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때 朴昇煥은 참가하지 않았다.<sup>18)</sup> 박승환 참령은 8월 1일 일본군 사령관 관저로 집합하라는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지만 称病하고 중대장 김재흡 정위를 대리로 참석시켰다. 박승환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의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결하였다.<sup>19)</sup>

이와 함께 제2연대 제1대대 중대장이었던 吳儀善 정위도 박승환이 자결한 날 칼로 자정 순국하였다.<sup>20)</sup> 오의선은 1900년 무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하고 1902년 7월 시위보병 제1연대 견습생으로 군인의 길을 갔다. 보병 참위에 임관한 후 1906년 보병 정위이자 진위보병 제1대 중대장을 맡았다.

南相憲 역시 병사들을 독려하여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경상남도 의령출신 남상덕은 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보병 참위로 임관하였고 군대해산 당시에는 제2연대 제1대대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16)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124~125쪽.

17) 대한제국 무관학교는 군대해산 당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다(『密大日記』, 「韓國駐劄軍 韓國軍隊解散に関する件」, 1907년 8월 2일).

18) 장석규, 「구 한국군의 애국정신-1907년 군대해산 시기를 중심으로-」, 『군사사연구』 1987, 199쪽.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461쪽.

20)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일, 「오씨도자처」.

안타까운 죽음<sup>21)</sup>과 충의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했다.

향일에 시위대 대장 박성환씨 죽을 때에 부위 남상덕씨가 충분히 격발하므로 병정을 지휘하여 일병과 접전하는데 일본장수 미원(梶原義久, 필자주)씨는 여순구싸움(러일전쟁, 필자주)에 큰 공을 이룬 사람이라. 남상덕씨 총에 맞아 죽었는지라. 한병의 탄환이 다 함을 보고 일병이 독하게 싸와 남씨도 죽었는데 지금까지 한국병정 마다 남씨의 충의와 지략을 강동하여 울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일병도 미원씨의 죽은 것을 대단히 애석히 여긴다더라<sup>22)</sup>

李峻永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1900년 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2년 졸업하였다. 육군 참위로 임관한 후 군대해산 당시 정위로 활동하다가 일본군과 교전 시 순국하였다.<sup>23)</sup> 李忠純은 남상덕과 함께 군대해산 시 충절 군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그 이유로 그가 순국하기 전에 부친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것이 그의 지극한 효성과 충군애국의 강직한 군인정신의 표상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 같다.<sup>24)</sup>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무관학교 출신들은 사력을 다해 군대해산을 막아보려 했다. 그 결전에서 한국군 전사자 70명, 부상자 100명인데 반하여 일본군 전사자는 4명이었으며, 부상자는 18명으로 파악하였다.<sup>25)</sup> 군대해산 시 이병무와 같이 이미 일제에 협력을 약속한 상관들의

21)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틀 뒤에야 집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4일, 「참혹한 경상」).

22)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0일, 「남씨의 충의」.

23)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일.

24) 박민영, 「대한제국 군인 이충순의 생애와 순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7, 65쪽.

25) 『密大日記』 「제14憲兵隊長報告」(機密 273호), 1907년 8월 7일.



명령에 자결과 항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아닌 조국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점은 군대해산으로 비록 정규군의 정체성은 상실되었지만 무장항일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한편 군대해산 이후 대한제국 군부에서는 1907년 9월 육군 무관학교 학도 50인을 선발하기 위해 한문, 독서, 작문, 산술, 역사, 地誌, 외국어를 시험으로 치러야 했다. 입학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한정하였다.<sup>27)</sup> 이때 모집되어 입학한 대표적인 인물이 염상섭의 큰형 염창섭, 후일 전범으로 사형을 당한 홍사익, 후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된 지청천, 후일 한국보이스카우트의 창시자였던 조철호 등이다. 이들과는 1년 정도 격차를 두고 무관생도 25명을 선발하였다. 이종혁은 1908년 11월 25일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1,0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되었다.<sup>28)</sup> 이종혁은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로 남게 되었다. 후일 이종혁의 체포와 순국 과정을 지켜보았던 ‘절친’ 김석원이 이종혁의 동기였다. 당시 교관으로 오쿠라 유사부로[小倉祐三郎] 대위가 수석교관의 위상을 벗어나 무관학교의 운영을 장악해 갔다. 그는 무엇보다도 절대복종을 강조하였다.<sup>29)</sup>

1908년 5월 무관학교 교장이자 무관학교 교관 및 생도들의 존경을 받았던 노백린이 퇴임하고 이희두가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폐교는 가시화되었다.<sup>30)</sup> 당시 의병들의 기세가 한반도 전역에서 크게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벌’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던 한국 주차군 입장에서는 군부와 무

26)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교관 및 교장으로 활동했던 노백린과 이갑에게도 군대해산은 큰 충격이었다. 특히 이갑은 고종 양위반대에 거사에 가담하여 옥고까지 치렀다(이정희, 『내 아버님 추정 이갑』, 129~134쪽).

27) 『대한제국관보』 광무 10년 9월 11일, 「유년학교 무관학교 생도모집」.

28) 『황성신문』 1908년 10월 20일자, 「육군무관학교 생도 25명을 모집할 터이니」.

29) 김석원, 『노병의 한』, 육법사, 1977, 49쪽.

30)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7일.

관학교 존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1909년 7월부터 수많은 문건들이 현해탄을 건너 대한제국 무관학교 학생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sup>31)</sup> 결국 1909년 7월 30일 조칙이 내려져 무관학교의 폐교가 결정되었다. 1909년 8월 2일 무관학교 교장 육군참장 이희두와 생도들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sup>32)</sup> 이 자리에서 이희두는 융희황제가 내린 칙령을 읽었다.

짐이 앞으로 신민들의 발달 정도를 보아 增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군부와 무관학교를 폐지한다. 현재의 군사는 궁중에 친위부를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고 사관 양성은 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해서 군사 일에 숙달하게 하는 바이니 너희 백성들은 짐의 의도를 잘 헤아리라.<sup>33)</sup>

경시총감은 무관학교 폐교 선언 현장에 경찰을 파견하여 이희두의 해산 선언과 생도들의 향배에 대한 상황을 통감에게 보고하였고, 통감은 육군대신 寺內正毅에게 전문을 보내 무관학교의 폐교상황을 자세히 알렸다.<sup>34)</sup> 또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들은 1909년 9월 10일 이전까지 자택에 대기하기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총 45명 생도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하는 생도는 44명이었다. 제국주의 일본은 무관학교 생도들을 바로 일본 육사에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단계인 유년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인물이 바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파견 교관이었던 小倉祐三郎 육군 대위였다. 이들은 한국 학생들의 학

31) 「육군무관학교 생도 학력정도 인원별표」, (1909년 7월 28일, 駐劄甲 제704호).

32) 『密大日記』, 「武官學校 生徒 解散 狀況に關する件」(機密제2329호-1), 1909년 8월 2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3일.

33) 『密大日記』, 「武官學校 生徒 解散 狀況に關する件」(機密通發 제1405), 1909년 8월 5일.

34) 『密大日記』, 위와 같음.

과 담당으로 배정하였다.<sup>35)</sup>

### III.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교와 독립군 ‘토벌’

무관학교에서 일본군 오쿠라 대위와 일본하사관들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통감부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폐교되자 ‘마지막 무관생도’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비롯한 각종 지표를 발표하였다. 전체 44명 가운데 정훈을 제외한 43명이 일본으로 가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sup>36)</sup> 하지만 일본에 간 최종 인원은 42명이었다.<sup>37)</sup> 그 전체 시험 결과에서 이종혁은 37위에 해당되었다. 당시 학과(일본어/기타), 술과(교련/체조), 성질(성격)과 체격을 시험하였다. 이종혁은 일본어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교련과 체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성격은 온순하며 체격은 강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년학교 1학년에 배치되었다. 이 시험에서 1위는 염창섭, 2위는 홍사익, 3위는 지석규(지청천), 4위는 유승렬, 5위는 권영한, 6위는 신태영, 7위는 이응준, 8위는 안종인, 9위는 이호영, 10는 조철호 순이었다. 이종혁보다 1년 먼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한 선배들이었다.<sup>38)</sup> 가장 어린 생도는 15년 6월의 박창하였으며, 연장자는 22년 3월의 장기형이었다.

1909년 9월 3일 이종혁은 남대문에서 환송식에 참가한 후 일본으로 출발하였다.<sup>39)</sup> 일본 육군유년학교 생도들과 같은 정복을 입었으나 대한제

35) 『密大日記』, 「韓國士官養成其他に關する件」(參제 594호), 1909년 8월 12일.

36) 『密大日記』, 「韓國武官學校生徒 教養に關する件」(제1693호), 1909년 8월 16일.

37) 『密大日記』, 「韓國學生人員 通牒의 件」(軍事一제184호), 1909년 9월 4일.

38) 「韓國陸軍武官學校 留學生 名簿」, 駐劄甲제316호, 1909년 7월 30일.

국 소속의 생도임을 알 수 있는 오얏꽃 모표와 분홍색 금장 표식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 지급한 피복이 담긴 雜囊을 하나씩 메고 있었으며, 응희황제가 준 군인착유 카드를 휴대하였다.<sup>40)</sup>

1909년 9월 6일 오쿠라 대위의 인솔을 받고 도쿄에 도착한 생도들은 바로 陸軍中央幼年學校로 이동하였다.<sup>41)</sup> 당시 육군중앙유년학교 교장 久能司는 육군대신 寺內正毅에게 한국 학생들의 신원 조사를 보고하였다.<sup>42)</sup> 이렇게 대한제국 무관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인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는 1887년 6월 메이지의 유년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1889년에 생도를 모집하였다. 유년학교는 생도들을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양 있는 장교로 키우기 위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피아노를 교수하였다.<sup>43)</sup>

이종혁은 유년학교에서 적응 기간을 거쳐 정규과정을 밟았다.<sup>44)</sup> 지칭

39)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들의 일본행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응원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어화 우리 무관학도들아, 군사학을 공부하여 적개심을 키우고 나라 독립 등에 지고 세계열강 무리치자 하였더니 갑작스런 군부 폐지로 학업 중단하였으나 와신상담 하여보세. 44명이 한마음에 뜨거운 피 뿌리며 공부하여 나라 중흥 공신이 되어 보세. 어화 우리 학도들아. 동해를 건넌 후에 급류중에 노를 젓고 烈日 아래 칼을 둘러 그 학업을 연구하고 이내 분발하여서 우리 국권 회복하고 유방백세 하여보세”(『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2일자).

40) 당시 생도들의 휴대품으로는 다갈색 모자 1개, 다갈색 여름 겹바지 2벌, 여름속바지 2벌, 겨울 겹바지 1벌, 겨울속바지 2벌, 반바지 속옷 1장, 다갈색화 1켤레, 이불커버 2개, 양말 3켤레, 피복 손질도구, 다갈색 외투 1벌, 수통 1개, 잡낭 1개 등이었다(『武官學校生徒日本留學の際携行すべき物件に關する件』, 普제2535호, 1909년 9월 2일).

41) 『密大日記』, 「陸軍中央幼年學校附 歩兵大尉小倉祐三郎報告」, 1909년 9월 7일.

42) 『密大日記』, 「本校に入校する韓國學生身元調書別紙一通給」(進達제357호), 1909년 9월 14일.

43) 『密大日記』, 「旧韓國武官學校生徒教育方」 国立公文書館 太政官·内閣關係 第35編, 1911년 5월 17일.

44) 김석원, 『노병의 한』, 66쪽. 이 때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 하나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였으며, 다른 하나는 한일병합이었다.

천, 이응준, 홍사익, 염창섭 등 대한제국 무관학교 1년 선배들이 예과 3학년으로 입학하였으며, 그는 2학년으로 편입되었다. 유년학교의 교과목은 대한제국의 교과목과는 달랐지만 이미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일본인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예과 3학년 편입한 한국 무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유년학교 교육이 끝나고 사관후보생으로 군대 및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상주서를 1912년 5월 17일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내각총리대신 桂太郎에게 보고하였다.<sup>45)</sup> 그해 본과 15명, 예과 23명이었다. 본과는 5월 졸업이었다.<sup>46)</sup>

이렇게 이종혁은 유년학교를 1913년 12기로 졸업하였다.<sup>47)</sup> 다음해 일본 육사에 입학하고 1915년 제27기로 졸업하였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번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조선 사람으로 유년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소위로 임명된 청년이 작년에도 십여 명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십 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생의 사진 설명(성적 차례대로) 장석륜, 김석원, 서정필, 백홍석, 김중규, 이방우, 김인옥, 장유근, 김종식, 이동훈, 정훈, 이종혁, 남태현, 유관희, 이희겸, 장기형, 장성환<sup>48)</sup>

이종혁은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후쿠오카 제12사단 28연대 소속이었다.<sup>49)</sup> 그해 일시 귀국하였다.<sup>50)</sup> 그리고 인천의 갑부 沈能德의

45) 『密大日記』, 「旧韓国武官学校生徒教育方」(제1782호), 1912년 5월 17일.

46) 『密大日記』, 「旧韓国武官学校生徒教育の件」(軍事課제52호), 1911년 5월 2일.

47) 김석원, 『노병의 한』 참조. 당시 12기는 267명이었다(『일본관보』 1913년 6월 4일).

48) 『매일신보』 1915년 6월 19일.

49) 「이종혁판결문」 참조.

50)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중위로 임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임관이 정확하다. 중위는 그가 만주로 탈출했을 때 마지막 계급이었다.

딸과 결혼하였다.<sup>51)</sup>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딸 하나를 두고 이혼하였다.<sup>52)</sup> 제1차 세계대전이 정리될 즈음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제국 일본은 17만 명의 군인을 시베리아로 파병하였다. 1918년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고 같은 달 12일 일본 육군 제12사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을 개시하였다. 9월 9일 일본육전대가 니콜리스크에 상륙하고 10월에는 동북시베리아 일대를 점령하여 작전지역을 확대하였다. 이 때 이종혁과 염창섭, 이응준 등이 러시아 연해주 전선에 참여하였다. 1918년 8월 이후 이종혁은 연해주지역에서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였다. 제국 일본군의 연해주 침략은 한인부대 창설을 재촉하였다. 원호인들을 대표하여 최고려 등은 별도의 한인부대 창설과 참전을 요청하였다. 이들과 달리 신한촌의 입적군인 다수는 배일적 친볼셰비키 입장을 취했다.<sup>53)</sup>

이종혁은 연해주 지역 한 마을에 주둔하고 있을 때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한인을 취조하게 되었다. 당시 소위였던 이종혁은 중대장의 처형 명령을 따랐으며, 이 때 한인은 이종혁에게 '조선인으로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였다.<sup>54)</sup> 이 사건을 겪고 출정에서 돌

51) 『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310~314쪽 참조. 沈能德은 경기도 광주인으로 1888년 인천에 와서 곡물 무역상 및 객주업을 경영하였다. 객주업과 곡물업의 매출액이 1916년 기준으로 4백만 원 정도였다. 특히 객주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천 상업회의소 평의원과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매일신보』 1916년 4월 27일, 인천신사신상 소개호 심능덕군), 1926년 5월 3일 사망하였다(『매일신보』 1926년 5월 5일).

52) 선우휘는 이종혁과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부인의 부정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이종혁이 부인과 이혼한 후 딸과도 이별하게 되었으며, 그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에도 그들과의 연락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선우휘, 「마덕창대인」, 131~132쪽).

53) 김병기·반병률, 『국외 3·1운동』, 독립기념관, 2009, 238쪽.

54) 이종혁이 유봉영에게 전한 이야기를 선우휘가 소설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마덕창대인」에는 "너는 어떻게 돼서 이런 복새판에 끼어들었느냐?"라고 이종혁

아온 이종혁은 바로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이종혁은 이 때 보병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였다.<sup>55)</sup>

그가 나고야에서 중위로 근무할 때 국내에서 거족적 독립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났다. 이종혁은 더 이상 일본군에 복무할 수 없었던 것 같다.<sup>56)</sup> 수차례 국내 파견을 군에 요청하였다.<sup>57)</sup> 이종혁이 만주로 망명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는 큰 꺾꽂 하나를 畏友 유봉영에게 맡기고 만주로 망명하였다.<sup>58)</sup>

#### IV. 만주 망명과 참의부 활동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는 르네상스시기를 맞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 1월 제국주의 일본에 독립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컸다. 1910년대 서간도, 북간도에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결실을 보고 있었다. 그 결과 1920

---

이 문자 항일투사는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런 왜놈군관의 복장을 하구 이런 데까지 와서 어정되고 있는거요”라고 했다. 이 일로 이종혁은 민족적 정체성과 자신의 영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것 같다.

55) 『매일신보』 1919년 4월 20일자.

56)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이종혁 복심공판연기」.

57) 『매일신보』 1928년 12월 16일, 「참의부군사수뇌자 이종혁 공판개정」.

58) 그 꺾꽂에는 병서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서를 반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설의 극적 재미를 위해 기술했던 것 같다(선우휘, 「마덕창대인」, 134쪽). 이종혁이 참의부에서 활동한 시기가 1925년이기 때문에 3·1운동을 목도하고 1920년경에 망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4년 동안 馮玉祥 부대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년 6월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적 지도기관의 부재였다.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만주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sup>59)</sup> 또한 임시정부는 외교독립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삼은 재만무장단체들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임시정부는 그들이 택한 외교노선으로 인해 만주의 무장독립단체를 영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좌절시켰다.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는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군의 간도 침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동안 별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의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60)</sup> 이러한 가운데 독립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고, 분산적인 독립운동의 효과가 지속될 수 없음을 독립운동가들이 인식하여 이른바 만주지역 3부 체제가 성립되었다.

만주로 망명한 이종혁은 봉천에 거처를 두었다. 당시 동북은 군벌들의 할거시대였으며, 특히 張作霖의 위세가 컸다. 이종혁은 만주 망명 후 어떤 연유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바로 독립군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sup>61)</sup> 그는 奉直전쟁에서 直隸軍으로 활동하다가 봉천군 포로가 되었다.<sup>62)</sup> 사형장에 끌려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는 중

59) 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202~203쪽.

6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 164쪽.

61) 박경은 이종혁이 풍옥상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한 인물로 조성환을 들고 있다(박경,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의 민족운동」, 166쪽). 다만 일본 육사 선배였던 유동열 역시 만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다.

62) 이종혁이 풍옥상 부대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1924년 풍옥상이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켜 북경으로 진격하여 오패부를 면직시켰다는 사실이다(中山隆志, 『關東軍』, 講談社, 2000, 54쪽). 이러한 전란 과정에서 이종혁은 체포와 방면을 통해 다시 만주로 온 것 같다.



국 장교 3명과 모의하여 탈출하는 데 성공, 베이징[北京]까지 도망갔다. 하지만 베이징 성내는 벌써 봉천군의 손에 들어가 그 경계망은 거미줄과 같이 퍼져 있었다. 제국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화중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가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을 선구로 한 국민정부군의 便衣隊 3백여 명이 봉천군 주요 인물을 암살 혹은 건축물의 파괴를 목적으로 북경 성내에 잠입하고 있다’라로 허위로 선전하였다. 봉천군별은 국민군에 가입하였던 중국인은 물론, 한인을 닥치는 대로 검거 체포하여 별다른 취조도 취하지 않고 사형을 단행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혁은 1924년 말경 참의부로부터 여비 300원을 받고 만주로 돌아왔다.<sup>63)</sup> 이때 만주에서 활동했던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와 일본육사 선배로는 지청천이 있었고, 일본육사 선배로 유동열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종혁이 합류한 독립운동 단체 참의부는 정의부와 함께 남만주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일제는 이종혁의 활동 가운데 참의부에서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참의부는 일제가 조사하였듯이 한반도와 만주지역 국경지대인 압록강 변에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힌 단체였다.<sup>64)</sup> 하지만 참의부는 1925년 2월 고마령 전투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면서 조직의 근간도 흔들렸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종혁(마덕창)의 등장은 참의부의 세력을 만회하는 데 결정적 요소였다.<sup>65)</sup> 1925년 하얼빈총영사관에는 이종혁을 통화현농무계에서 유동열과 함께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66)</sup> 유동열은 일본육사 15기 출신으로 이갑과 동기였으며, 경술국치 이후 만주를 비롯한 중국 지역

63) 이종혁 판결문 참조.

64)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9, 229쪽.

65)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230쪽.

6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41, 「南北滿洲ニ於ケル不逞鮮人團體調査ノ件」(機密제768호, 1925년 5월 21일).

에서 무장투쟁의 선봉으로 활동한 인물이다.<sup>67)</sup>

이중혁이 활동했던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은 3부로 요약된다. 1922년 8월 남만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조직된 大韓統義府는 독립군이 염원하였던 결과물이었다. 대한통의부의 존재가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상징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재적 모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통의부 소속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복벽주의자들이 결국 통의부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통의부 의용군을 주축으로 1924년 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은 육군 駐滿參議府가 조직되었다.<sup>68)</sup>

설립 당시 참의부는 중앙부서인 중앙의회와 민사부를 두었지만 무장투쟁의 위해 군단을 설치하였다.<sup>69)</sup> 창립 초기 참의부는 간부진 밑에 약 500명 이상의 병력으로 남만의 압록강변 중국지역을 관할하면서 지역 내 한인들에게 자치행정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독립군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참의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1925년경 집안현 화전자에 본부를 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참의부는 또 한 번 중대한 조직 전환의 위기를 맞게 된다. 참의부는 1925년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해 輯安縣 古馬嶺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중 이를 탐지한 초산 주둔 수비대에게 기습을 받고 장시간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참의장 崔碩淳을 비롯한 간부와 대원 29명이 전사하였다.<sup>70)</sup> 참의부는 조직의 붕괴를 막고 보다 발전적

6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34, 「柳東悅 行動」(機密受제1176호, 1922년 10월 28일).

68)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同志會, 1965 참조;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130~131쪽.

69) 유병호,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政體」, 『역사비평』 17, 1992, 252쪽.

70)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同志會, 1965, 351~352쪽.

인 전환을 꾀하였다. 1925년 8월 행정위원회를 열고 행정조직과 관서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군사와 민정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때 이종혁은 군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sup>71)</sup>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운동 통합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25년 9월 5일 이종혁은 자신의 일본 육사 선배이자 정의부 군사위원장이었던 지청천이 수하 성인호와 최관룡을 대동하고 하얼빈에 왔을 때 신민부 교섭 중개원으로 3부 통합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sup>72)</sup> 뿐만 아니라 지청천이 신민부의 책임자였던 김혁과 정신 등을 만나 다음과 같은 교섭을 통하여 3부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데 일조하였다. 다음은 이종혁과 지청천 등이 교섭한 주요 내용이다.

첫째 군사통일, 둘째 재정통일, 셋째 임시정부 봉대, 넷째 정의부 및 신민부 세력 구역내에서는 쌍방으로 모연하지 않을 것. 다섯째 양 구역외에서는 임의로 모연을 방해하지 않을 것, 여섯째 재만 각기에서 작은 단체는 진압 타파할 것.<sup>73)</sup>

참의부는 통합문제뿐만 아니라 민정부문도 강조하였다. 이는 독립군 양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나아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원활한 무장

71) 이종혁이 참의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먼저 유동열이 있었다. 그는 일본 육사 출신이며, 대한제국 육군 장교였으며, 무관학교 교관이기도 했다. 1910년 망명 후에도 만주지역에서 군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총장에 임명되었지만 상해로 가지 않고 남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인 통군부, 통의부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종혁과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본육사를 다녔던 지청천도 이종혁의 참의부 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7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41, 「鮮匪團 正義府對 新民府 妥協進行狀況ニ關スル件」(機密 제508호, 1925년 10월 5일).

73) 위와 같음.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되었다. 이처럼 각 근거지는 모두 압록강변을 끼고 있었으며 신속한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일제의 동태에 주시하였다.<sup>74)</sup> 중앙조직 및 군사조직을 구성하면서 아울러 민사조직 역시 관할 구역을 정하고 지방 행정망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참의부는 관할 구역 내의 한인을 천호 단위로 하여 백가장을 두고 그 밑에 십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정하여 50명 전후의 경호대원을 육성하고 지방 치안을 유지하고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 특히 각 근거지가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진입 유격대와 함께 무장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보험대라는 특수조직이었다. 이 보험대의 임무는 각 중대 및 소속부대간의 통신은 물론이고 참의부 독립군들이 유격대를 편성하여 진입할 경우 안내의 역할 맡기도 하였다.

한편 1927년 3월 하얼빈에서 소집되는 제3공산당 연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의장을 사임한 윤세용 대신에 임시정부에서는 김승학을 참의장으로 임명하여 참의부에 보냈다.<sup>75)</sup> 김승학은 참의장에 취임한 후 중앙조직의 직제를 위원장제로 바꾸고 관할 지역 내의 지방조직도 정비하였다.<sup>76)</sup> 동시에 중국 관내의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장교들을 군사조직에

74)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8, 1994, 258쪽.

75)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9, 12쪽.

76) 군정부로의 모습을 탈바꿈한 참의부는 1928년 조직을 마지막으로 재정비한다. 본부를 환인현으로 하고 있는 참의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 마덕창, 외교위원 김소하, 조직위원 김강, 선전위원 박대호, 재무위원, 김진, 민사위원 이광명, 교통위원 최천주, 법무위원 맹성록, 비서장 김선풍, 중앙의회 의장 양하산, 상의회원 계추강, 상의회원 김윤석, 상의회원 백시관, 상의회원 박중수, 상의회원 백학세 제1중대장 김광명 인원 50, 제2중대장 김현 인원 50, 제3중대장 한세진 인원 30, 제4중대장 김상옥 인원 20, 제5중대장 박대호 인원 30, 중앙후회대장 천천리 인원 20(김승학, 『한국독립사』, 351쪽).

배치하여 군사력도 회복해 갔다. 김승학이 참의장이 되고난 후 새롭게 편성된 중앙조직 간부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이종혁은 군사위원장을 맡았다.

참의장 김승학, 군사위원장 마덕창(이종혁), 민사위원장 김소하, 재무위원장 한의제(박희빈), 법무위원장 계추강(계담), 교육위원장 양기하, 중앙의회 의장 백시관<sup>77)</sup>

참의부의 군사조직은 초기에는 집안현, 환인현, 통화현 등 각 지역에 중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종혁이 군사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중앙조직 내의 군사위원장 밑에 중대와 소속부대를 편성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위원장 이종혁 밑에 5개 중대와 중앙호위대가 편성되었는데 제1중대장은 김소하, 제2중대장은 박희곤, 제3중대장은 양봉제, 제4중대장은 박대호, 중앙호위대장 차천리가 임명되었다.<sup>78)</sup> 이종혁은 참의부 소속 군인의 교육과 군행정을 책임졌으며, 국내 진입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종혁은 환인과 통화현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각 지역에 '세포'를 관리하면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sup>79)</sup> 그의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와 일본 육사의 교육과 경험 등이 독립운동 활동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77) 『독립운동사』 5, 460쪽.

78) 김병기, 『참의부연구』, 80쪽.

79) 『매일신보』 1928년 11월 27일, 「참의원에 가입했던 예비중위이종혁」.

## V. 체포와 순국

이종혁은 1928년 9월 봉천에서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었다.<sup>80)</sup> 이 시기는 참의부에서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사관학교를 운영할 때이다. 그가 참의부 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왜 봉천까지 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자신의 부하였던 최영암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해 봉천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평양 복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된 이종혁에게 1929년 5월 21일 5년 판결이 확정되었다.<sup>81)</sup> 그가 체포되자 일본육사출신의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의부원 이종혁은 일찍이 동경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24연대에 재직하여 정 7위훈6등의 육군 중위로 있다가 시국에 불만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민으로 입적한 후 특히 풍옥상의 참모장이 되어 많이 활동하다가 참의부에 참가하여 군사위원장이 되어서 00단을 통일하며 밀정 등을 살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sup>82)</sup>

80) 선우휘, 「마덕창대인, 135쪽에서는 1927년 가을이라고 했는데 유봉영의 기억의 오류로 여겨진다. 작년9월 27일 동지 수명과 같이 중국 봉천서탑대가에서 일본 영사관 경찰 손에 체포되어 취조를 마친 후 동년 12월 11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불복하고 평양 복심법원에 공소중이든 충남 당진군 출생 일본육군 중위 이종혁의 관한 친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복심판결을 21일 오후 경재판장으로부터 징역 5년 언도받음(『중외일보』, 1929년 5월 23일, 「육군중위로 탈주 만주서 직접 운동」).

81) 『매일신보』 1929년 5월 25일, 「참의부원 이종혁 재심에서 5년언도」.

82) 위와 같음.

이종혁의 활동과 체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는데 기사의 오류가 곳곳에 보였다. 그의 출신지를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거나<sup>83)</sup>, 특히 “1924년 만주로 가서 그 후 1926년 중국 국민군제 00군 참모로 있다가 1926년 12월경 봉천군에게 포로가 되어 사참에 이르렀다가 교묘히 봉천을 탈출하여 북경에 있었다. 1928년 2월경 참의부에 가입하여 드디어 군사부 집행위원 장까지 달하였다.”<sup>84)</sup>라는 기사에서는 그의 만주망명 시기와 참의부 가입 시기 등에서 오류가 있다. 예컨대 만주 망명은 1920년 직후이며, 참의부에서 군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1927년 3월이다.<sup>85)</sup> 또한 체포 관련 날짜도 “작년(1928) 9월 27일 동지 수명과 같이 중국 봉천서탑대가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손에 체포되어”<sup>86)</sup>라는 기사와 “이종혁은 일본육사를 거쳐 중위로 근무하다 중국 국민군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군사위원장으로 활약 중 1928년 12월 20일 체포되었다.”<sup>87)</sup> 라는 기사는 무려 3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28년 9월 18일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에는 참의부 군사위원장 마덕창이 봉천에서 일경에 피체되었다”<sup>88)</sup>라고 한 정보와 “1928년 9월 17일 봉천서탑대가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의 손에 체포되어”<sup>89)</sup> 라는 기사는 이종혁의 체포 날짜가 하루차이가 난다. 그의 정확한 체포일자는 1928년 9월 17일이다.<sup>90)</sup>

그는 체포된 후 신의주 경찰서에서 심리를 마치고 1928년 12월 21일

83) 『중외일보』 1929년 7월 14일, 「참의부 군사위원장 이종혁예심종결」.

84) 『매일신보』 1928년 11월 27일, 「참의원에 가입했던 예비중위이종혁」.

85) 『한국독립운동사』 5권, 463쪽.

86)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복심 공판연기, 입회 변호사 사정으로, 사건내용의 개요」.

87) 『동아일보』 1929년 5월 23일

88)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230쪽.

89)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재심공판연기」.

90) 「이종혁판결문」 참조.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았다. 하지만 이종혁은 이에 불복하여 평양복심법원 상고하였다. 공판이 계속 연기되었으며,<sup>91)</sup> 마침내 평양 복심 법원에서 1929년 5월 21일 5년형을 받았고, 그해 10월 24일 상고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다. 상고 기각 관련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뒤를 이어 소창12사단 소속 현역 소위로 있다가 대정칠년 서백리아 출전까지 하여 정7위훈6등 중위까지 승급하여 현재로도 예비사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충남 당진군 이종혁(38)에 관한 치안 유지법 위반 및 강도 피고사건의 상고심은 이십사일 고등법원에서 이등 검사 간여하에 소천 재판장으로부터 상고 기각의 판결을 내리어 원심대로 5년 징역에 처하였다. 그는 서백리아 출전을 하였다가 귀국한 후 1921년에 일본군대에서 나와 최초는 중국으로 건너가 장개석의 군대에 들어가 국민혁명을 도우다가 조선00군 참의부에 참가하여 군사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어 신의주 지방법원과 평양복심에서 5년 징역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던 것인데 그간 그는 파탄만은 생애를 보내었더라.<sup>92)</sup>

평양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루고 있었던 이종혁은 1929년 6월 26일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이었던 유봉영에게 자신은 감옥에서 잘 있으니 이전에 부탁한 漢和사전을 부치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으니 그만 두라는 엽서를 보냈다.<sup>93)</sup> 그 다음해 5월 28일에 또 한 차례 유봉영에게 엽서를 보냈다. 보내준 사전과 상용 일러 회화책도 잘 받았다고 하면서 유봉영의 관심에 크게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이종혁은 좋지 않은 몸 상

91) 『중외일보』 1929년 2월 11일, 「참의부 이종혁 재심공판연기」.

92) 『매일신보』 1929년 10월 25일, 「이종혁의 상고기각」.

93) 신연수 시인 소장의 엽서를 이원규 작가가 필자에게 보내주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다.



태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5년 만기 수형 생활을 끝내고 1934년 4월 1일 평양형무소에서 출옥되어 평양 시내 금송여관에 체류하였다. 그는 복역 중 늑막염을 심하게 앓아 건강이 크게 좋지 않았다.<sup>94)</sup> 유봉영은 평양 금송여관에 임시 거주하고 있던 이종혁을 데리고 자신의 서울 소격동 자택으로 왔다. 이때 대한제국무관학교와 일본육사부터 단짝이었던 김석원이 찾아 왔다. 그는 그의 회고록 『노병의 한』에 이렇게 기록했다.

유봉영을 설득하고 결국엔 그를 따라가 참 오래간만에 이종혁을 만났다. 생각하면 한국무관학교 시절부터 일본 육사까지 만 8년 동안이나 한술밥을 먹으며 책상을 나란히 하고 공부를 같이 한 이종혁과 나 사이가 아니던가. 하지만 한쪽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 장교요, 또 한쪽은 독립을 가로막는 일본군의 장교였다. 묘한 사이였다. 따져보면 극과 극의 사이랄까. 하여튼 나는 이종혁과의 오랜 해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착잡한 감회를 맛보았다. 우선 이종혁을 볼 면목이 없었다. 심한 늑막염으로 병색이 말미 아닌 이종혁이었지만 도리어 그가 당당한 인간처럼 보였고 나 자신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였다.<sup>95)</sup>

그의 병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자 관산 조철호는 이종혁을 평북 선천 요양원으로 이전하여 요양하게 하였는데 1935년 12월 14일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바로 고향 충남 당진으로 이장하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유해를 이장할 형편이 못되었다. 다만 그의 큰형 이종철이 충남 당진으로 이종혁의 유해 이장을 준비하였다. 이 때 그의 군

94) 『동아일보』 1934년 4월 7일.

95) 김석원, 『노병의 한』 참조.

대 동기들이 함께 참여하였다.<sup>96)</sup>

## VI. 맺음말

이종혁의 생애는 한국근대사의 민낯이자 한국군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의 일생은 대한제국 마지막 무관생도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1909년 9월 폐교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 제국 일본의 군사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병합되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교육은 지속되었다. 이종혁을 비롯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이 열어져 갔으며, 그야말로 일본에 순치되어 안락한 생을 영위하는데 길들여졌다.

이종혁도 일본육사 졸업 이후 자대배치와 1918년 시베리아 출병에 참가하면서 제국 일본군으로의 위상을 몸으로 직접 느꼈다.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일본에서 전해 들은 이종혁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선배 김경천과 지청천을 떠올렸을 것이다. 시베리아 출병 당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문했던 한인 독립운동가, 조국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의 도도한 물결은 이종혁에게는 묵직한 난제였다. 만주로 망명을 결심한 이종혁은 畏友 유봉영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

만주로 망명한 후 이종혁은 국민정부 북벌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924년 참의부와 연결된 이종혁은 일본 육사 선배인 지청천과 유동열을 통해 독립군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96)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1일, 「이종혁 유해 이장을 준비」.

군대조련과 군자금 모집에도 참여하였으며, 1927년 김승학 참의장 시기에 참의부 군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종혁은 1928년 9월 봉천(심양)에서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1929년 5년형을 확정받고 1931년 4월 만기 출옥하였다. 수형생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 시험을 받았으며, 이를 이겨냈지만 자신의 신체는 회복 불능상태였다. 이종혁은 1935년 12월에 평안북도 선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과 책무의 경계가 어디 까지인지 또 그것을(정체)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제국 일본의 순치를 거부한 이종혁의 삶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고민해야 할 큰 과제이다. 아울러 그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일본 육사출신들 가운데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인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군사를 재정립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2021.07.08. 투고 / 2021.07.28. 심사완료 / 2021.07.29. 게재확정)

[Abstract]

**Life and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 Lee Jong-hyuk,  
a graduate of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Academy**

Kim, joo yong

When the Korean Empire Military Academy, which had remained clear since the disbandment of the army, was closed, Lee Jong-hyuk entered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in accordance with imperial Japan's policy and walked the path of a soldier. Although the country collapsed in August 1910, he completed the Japanese military service safely as a ruinous slave. After being commissioned as a lieutenant in 1915, he served as a loyal soldier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However, when he was dispatched to Russia in 1918, he faced the situation of executing his own fellow countrymen and anti-Japanese fighters. He burned his will to participate in the Independence Army while watch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After defecting to Manchuria, he met Lee Chung-cheon, a senior member of his military school, and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consulate police while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milit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served a five-year prison term. In prison, Lee Jong-hyuk received countless conciliatory gestures from imperial Japan, but kept his pride as an independence activist. Lee Jong-hyuk, who came out of prison, was exhausted, but his spirit and pass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wer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This is why the life of Lee Jong-hyuk, a soldier who kept his national identity in the midst of an individual's leadership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a chaotic period, should be recalled and remembered rather than the life of his colleagues and colleagues at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who walked the path of pro-Japanese relations.

□ Keyword

Lee Jong-hyuk, Lee Chung-cheon, Korea Empire Military Academy, Japan Military Academy, Independence Movement

[참고문헌]

『조선중앙일보』, 『덕수이씨문혜공파 족보』, 『승정원일기』, 『密大日記』,  
『대한매일신보』, 『대한제국관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중외일보』,  
『동아일보』

김병기·반병률, 『국의 3·1운동』, 독립기념관, 2009.

김석원, 『노병의 한』, 육법사, 1977.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同志會, 19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류시중, 박병원, 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9.

박경, 「참의부군사위원장 이종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박민영, 「대한제국 군인 이충순의 생애와 순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7.

선우휘, 「마택창대인」, 『현대문학』, 1965.5.

유병호,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政体」」, 『역사비평』 17,  
1992.

유준기, 「참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유준기, 「1920년대 재만독립운동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이기동, 「이응준, 국군 창설의 산파」, 『한국사시민강좌』 42, 2008.

장석규, 「구 한국군의 애국정신-1907년 군대해산 시기를 중심으로-」, 『군  
사사연구』 1987.

-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채영국, 「1920년대 중반 남만지역독립군단의 정비와 활동」,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8, 1994.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9.
-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황학수』, 역사공간, 2006.